

# 우리들 이야기



저는 장난감 블록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성전 모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 유, 11세,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생일 선물로 새끼 고양이를 받았는데 루즈라고 이름을 지어 줬어요. 어느 날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루즈는 항상 길거리에 나갔다가 돌아오곤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는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엘마서 37장 37절에서 말하는 대로, 저는 곧바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유익하도록 지도하시리라.”

기도를 마치자 루즈의 목줄에 달린 방울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여니 루즈가 밖에 서서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우리 얘기를 들으신다는 것에 놀라고 아주 감사했어요.

비앙카 알, 11세, 아르헨티나, 산타페



가브리엘 에이,  
10세,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



초등학교 음악 지도자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범이시라는 것을 알려 주는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거룩한 순종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제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셔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면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마사 엠, 7세, 콩고민주공화국, 카낭가